

2025년 5월 25일 “(가정의 달) 가정, 사람됨의 뿌리”(창 2:20b~25)

생명을 지닌 존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 성장은 사람에게 있어서 전인적 인격의 성숙을 의미하는데,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할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1] ‘부끄러움’의 의미와 작동 방식

인간은 단순한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육신, 정신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어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성장, 곧 ‘사람됨’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 2:25,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복합적이며 인간 존재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얼굴이 붉어지고, 시선을 피하거나 몸을 움츠립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수용과 총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부끄러움은 ‘지체됨과 무산’에서 비롯되는 당혹감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책망 받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며 느낀 당혹감과 자존심의 상처, 신뢰 붕괴에서 부끄러움(수치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기대가 어긋날 때의 실망도 부끄러움을 일으킵니다. 욥기 6장에서 욥은 친구들이 위로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공격을 받아 그들을 믿었던 것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셋째, 근본적으로 부끄러움은 신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 이방의 강국이나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뱀의 말을 따랐을 때, 그 즉시 수치심과 두려움이 물려옵니다.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3:10)는 고백은, 신뢰가 깨어질 때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부끄러움은 ① 신뢰의 붕괴, ② 기대의 무너짐, ③ 관계의 단절 속에서 발생합니다.

[2] 부끄러움 없는 삶과 가정으로의 회복

우리는 타락 이후 여러 형태의 부끄러움을 경험하면서 나를 선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존재감의 회복은 창조의 의미를 발견할 때 가능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숨결로 지어진 존재이며, 그들의 삶의 자리였던 에덴동산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2:39-40). 여기서 ‘네 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입증되어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의 실천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상태는 참 사람됨의 뿌리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회복의 표지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총만함 속에서 우리 각 가정과 교회가 부끄러움을 벗어나 사랑과 자유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자주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그 감정은 내 존재감이나 신뢰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2. 가정 안에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